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03
----------	------

발의연월일 : 2024. 10. 29.

발 의 자 : 한기호 · 김종양 · 김선교  
김기현 · 임종득 · 서천호  
김용태 · 강선영 · 김정재  
윤한홍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병과장(兵科長)이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나면 당연 전역되며, 전직된 유사 직위에서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연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그런데 병과장이 유사 직위 전직 후 2년이 경과하여 전역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으로 정상적인 보직 교체가 어려운 경우 또는 후임자가 현재 해당 병과장으로서 임기를 만료하지 않아 즉시 보직이 어렵거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해당 전직 직위가 공석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병과장이 전직하는 직위는 대부분 국방부에서 해당 병과의 소관 업무를 통할하는 부대장으로서 국방 운영상 매우 중요한 직책이므로 해당 업무의 중단 없는 운영이 요구되는 자리임.

이에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전직 지위

의 임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국방 운영 및 해당 직위의 공석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병과장이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전직된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전역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병과장이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p>	<p>⑥ -----제5항----- ----- ----- -----.</p>
--	---